

복화술사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든 아이

하루아침에 아침 드셨는지요 인사가
밤새 안녕하신가요로 바뀌었다
환절기가 지난 지 오래됐는데
한속기가 난 듯 몸이 덜덜거렸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빠는 복화술사도 아니면서
아이를 내세워야만 했다

아따 내 말 쪼매 들어보란 말이요
입술도 움직이지 않고 또박또박 말하자
아들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려내릴 것처럼
좌중을 바라보았다

오월이 머뭇시 요로케 추운지
덜덜거리는 몸뚱어리를 으뜨케 단도리혀야 쓰는지
복창 터져 죽것구만요
아빠는 입을 앙다물고 복화술을 이어나갔다

영정사진을 들기에 너무나 어렸던 아들은
눈을 떴지만 보이지 않았고
귀를 기울였지만 들리지 않아
끝내 말문이 막혀버려
한마디도 전할 수가 없었다

밤새 무얼 보았던 걸까
비명에 돌아가신 아빠는
환청처럼 쉬지 않고 복화술을 이어 나갔다

아이는 입술 한번 달싹이지 않고
똑똑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았지만
40년이 훌쩍 지난 시공을 뛰어넘어도
숨겨진 이야기들을 쏟아내며
세계인들의 가슴팍을 파고들었다

아빠는 죽어 복화술사가 되었고
아들은 말 한 마디 않고도 죽은 말들을 살려냈다

*독일 슈피겔지에 게재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든 아이 사진.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를 절묘하게 대비하여
광주의 아픔을 세계인에게 전한 518의 상징적인 사진 중 하나.

봄동

수상한 그림자가 배추들을 퐁퐁 묶었다 찬바람에 걸앉은 누더기가 되어갔고 간신히 세상을 붙들고 있던 배추들이 뿔혀나갔다 배추밭 군데군데 총탄 자국 같은 구멍들이 선연했다

실려 간 배추는 돌아오지 않았다 세상 소식이 궁금한 애벌레는 자꾸만 남은 이파리에 구멍을 내며 변태를 거듭했다 배춧잎 몇 장을 먹고서야 간신히 하얀 날개 두 장을 달았다 벚꽃은 흩날리는 바람에 한 생을 흘러당 날렸다고 했다

배추흰나비는 아픈 배를 움켜쥐고 배추의 안부를 물었다 그때까지 밭고랑에 남아 노란 꽃망울을 밀어 올리는 이파리들이 보였다 때늦은 만개를 눈여겨보는 이는 없었다 흰나비는 먹여 살린 흔적이 남아 있는 이파리마다 알을 슬어 놓았다